거북이 등껍질

(고전1:1~17)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눌 때 문안인사를 드리는 바울의 편지의 결론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인사 드린다고 할 때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지구 바깥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인이 지구를 바라볼 때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요.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봐서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보석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영적인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거북이 등껍질을 보는듯한 모습이 분명합니다.
지구는 갈라져있습니다,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 단위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보면 나라가 갈라져있고 민족이 갈라져있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신분을 따라 빈부의 차이를 따라 지식의 유무를 따라서 성별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인간들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담 때부터 있어왔던 인간의 죄악 된 본성 아닙니까?
그렇게 죄악 된 본성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인간들의 삶이 펼쳐진 지구의 모습을 지구 밖에서 바라보면, 영적으로는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갈라져있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구 모습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갈라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교인들, 그들이 본문 2절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성도.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이렇게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4분5열 천 가지 만 가지의 분파로 갈라진 이 지구 안에서의 성도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두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갈라져 있는 지구 위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은 갈라져 있는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열려있어서 하늘로부터 그 기운이 교회 안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개개인이나 단체적 의미에서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하늘의 기운이 먼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 모두가 다 세상 속에서 삶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의 기운들이 교인들 안에 담겨져 있다가 세상 속으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교회의 모습은 하늘이 막혀버립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막혀서 하늘이 차단돼버립니다.
이때 거꾸로 세상의 기운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늘 기운을 받아서 하늘 기운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세

상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가능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겠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상의 기운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외관상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세상이 교회를 점령했다고 하는 증표가 바로 교회 안의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건 인종이건, 돈이 있고 없고, 신분이 어떻건, 지식이 있건 없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분과 계층과 나라와 민족으로 갈라지고 갈라져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대신에 하나님께로 드려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구를 떠나서 그리스도 한분 안에 속해있는 것이고, 죽음과 승천 사이에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영역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색에 상관없이 어떠한 인간들 사이의 분파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상.
그리스도 안으로 마음을 들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들어왔다는 첫 번째 증표가 뭐냐 하면 갈라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제일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편지입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록해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만, 고린도교회 내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세속의 기운이 고린도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기운에 굴복했다는 첫 번째 징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교회의 실존적 위상을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해상교역과 지상교역의 중심지에요.
그래서 당시 세계를 분할하여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문화권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로마문화, 그리스문화, 그리고 각종의 이방의 문화들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방종교가 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끝없는 방탕과 퇴폐와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했던 도시입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부터 하늘 기운을 받아서 그렇게 타락의 극에 달하고 있는 도시에 뻗어나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멋진 일이고 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만 그 타락하고 퇴폐하고 문란했던, 그리고 그 부유함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있었던 고린도의 세속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거북이 등껍질의 형상의 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4색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분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 각 분파마다 특징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이 분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교회 교인들과 함께 각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이런 분파를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로파와 목사파, 담임목사파와 원로목사파일 것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교회에서는 뭐라고 나왔나 하면, 바울파, 게바(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네 분파로 나누어졌느냐?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파의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파,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사모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교회가 AD 50년경에 세워져서 고린도전서가 쓰인 것이 55년 말이나 56년 초 정도이니

까, 한 5~6년이 지난 상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바울파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도바울과 함께 고린도교회를 설립한 소위 창립멤버들을 주축으로 한 분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린도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선언하고 회당 밖으로 나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회당 가까이에 집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이 그 예배에 가담하게 되고,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창립멤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바울파가 생겨났다는 것은, 창립멤버들끼리 분파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교회들에도 창립멤버들의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세우신 장로들과 창립했던 목사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간의 분파, 새로운 담임목사님이 세운 장로님들은 절대적으로 담임목사님을 추종하고, 창립하신 목사님들이 세운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담임목사님을 견제하는 것,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가 바울파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교회에서 어떤 특색을 지니는 분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켜서 고린도로 떠나서 고린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헬라문화의 거점이 되는 도시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인 아볼로는 태어나서부터 그랬는지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타고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정통하고 있었고, 언변이 능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언쟁을 해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쟁할 때 논쟁적으로 유대인들을 이겨먹었다고 해요.
그처럼 탁월한 언변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내에서도 요즘의 교회의 성경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의

지적인 측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로 뭉쳐있었다는 겁니다.

또, 게바파라는 것은 뭡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베드로를 아람어인 게바라고 부르면서 게바파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고린도가 이방지역이었지만, 이미 5,6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 열두 사도였고 그 열두 사도의 수석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즉, 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자리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삼천 명씩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에서 어떤 면을 중시했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강림 때 역사했던 성령의 기적과 이사를 신앙의 핵심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그런 기적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8절 이하를 쭉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분쟁의 이유를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유대인처럼 표적을 좋아하는 자들로 나누는 것을 보아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리스도파는 괜찮지 않느냐, 당연히 그리스도파가 돼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어느 분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로서, 민족과 나라와 신분과 계층과 언어의 모든 차별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분이지, 어느 하나의 분파에 속해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정했을까요?
구약적 메시아사상을 물려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시면 선민을 이끌고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는 나라를 건립할, 이 땅 위에서 최고로 강성한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하면, 현실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깁니다.

요즘의 기독교 장로교, 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데모를 가장 많이 하는 교파가 기독교장로교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생들, 감리교 교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감리교 신학생들의 성향.
한신대로 대표되는 기독교장로교 학생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요청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파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가 처했던 고린도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조직을 바꾸고 변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지요.

이 모든 분파의 문제점을 사도바울은 단박에 한 마디로 분쇄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망각되었다는 겁니다.
분파 네 개 중에서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쓴 바울파를 겨냥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도 십자가사건과 연합한다는 고백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사분오열되어있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회의 분파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또 거꾸로 말해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밀고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道), 길이에요,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 마음이 가야될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사분오열된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현상이 가장 특징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실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야될 길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므로 성도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징적이고,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섭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맞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한다고 해도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섭리적 길이 순교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참자고 하는 이 얘기도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이 대신해서 내가 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으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갖느냐 하면, 교회로 와글와글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꿈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세 명이 되었든 다섯 명이 되었든 백 명이 되었든 천 명이 됐든, 모인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각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꿈꾸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 하나가 교회에서 상실되면 반드시 교회에는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북이 등껍질 같은 세상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각자가 붙들고, 붙들게 함으로써, 또 목사님들은 어떡하든지 교인들이 십자가를 붙들게 함으로써 세상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영향력에 대해 죽고 하늘을 향하여 개통되게 하고, 하늘 기운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의 삶으로 돌려보낼 때는 그들의 삶에서 하늘의 기운이 세상을 향해 밀고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거북이 등껍질 같은 세상의 영향력을 십자가의 도로써 이기시는 하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민족도 나라도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두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하나의 분열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한시도 잊지 않는 교회들이 됨으로써 하늘기운을 받아서, 거북이 등껍질같이 사분오열이 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기운으로 밀고나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들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